

## 주요 내용

1. [장래인구추계 : 10년 뒤 인구 변화]

10년 뒤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재보다 51% 증가!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2023년 돌아보기

2) 한국인의 소득/자산 격차



# 10년 뒤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재보다 51% 증가!

2019년 넘버즈 창간호의 주제는 ‘인구 절벽’이었다. 그만큼 다가올 한국 사회와 교회의 고령화 현상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 첫 주제로 선정했었다. 이후 넘버즈 128호(2022.1.)에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을 다룬 이후 올해 넘버즈 첫 번째 주제로 인구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었다. 그만큼 인구 문제는 한국교회에 시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다.

보통 장래인구를 추계할 때는 불확실성을 감안,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조합한 31개 시나리오에 의해 고위(최선의 가정), 중위, 저위(최악의 가정) 추계를 발표하는데, 보통 언론에 발표되는 수치는 중위 추계에 기반한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2년의 합계 출산율이 4년 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저위’ 예상 추계에 가깝게 나왔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더 안 좋은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더 빠른 고령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년 뒤 현재보다 51% 증가하고,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넘버즈 222호>에서는 10년 뒤 일어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의 중단기적 미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자 했다. 인구 절벽 시대에 고령자,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저희 연구소가 설립한 이후 이제 6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전국 구독자의 기도와 후원에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회데이터연구소 직원 일동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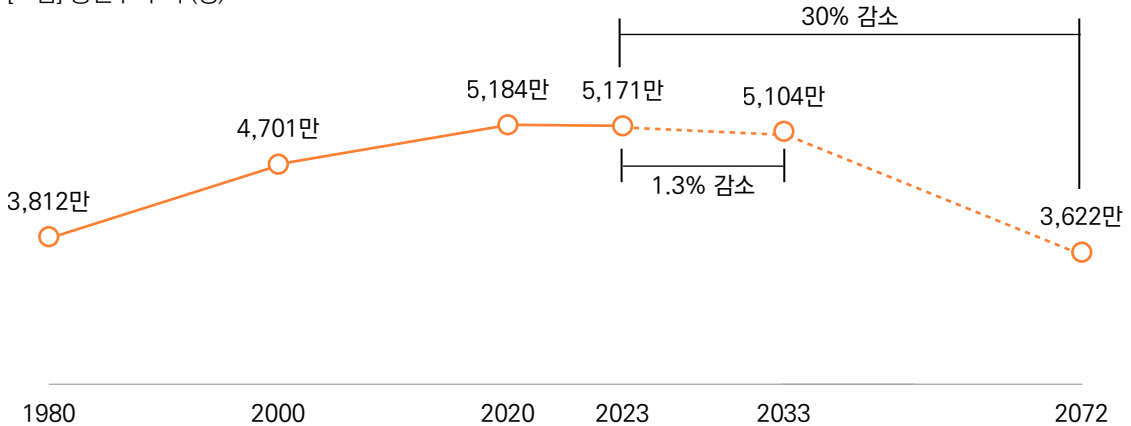


# 01

## [10년 뒤 인구 변화] 우리나라 인구 감소중이지만, 10년 뒤 크게 줄지 않아

- ▶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1980년 3,812만 명에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5,184만 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앞으로 10년 후인 2033년 우리나라 인구가 5,104만 명으로 현재 대비 1.3%가 감소되고, 50년 뒤인 2072년은 3,622만 명으로 2023년 현재 대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총인구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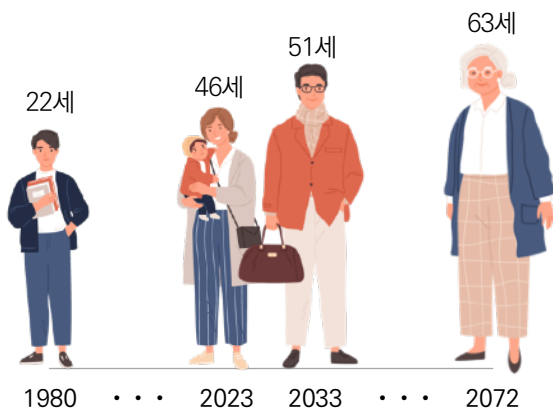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 중위연령, 2023년 46세 → 10년 뒤 51세!

- ▶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연령을 '중위연령'이라 일컫는데 1980년에는 중위연령이 22세였고, 2023년은 2배 이상 높아진 46세, 10년 후인 2033년은 51세, 50년 후에는 무려 63세가 우리 국민의 중간 나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중위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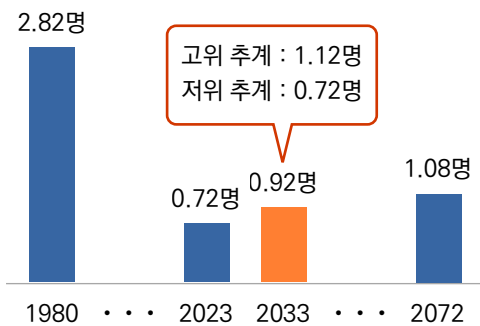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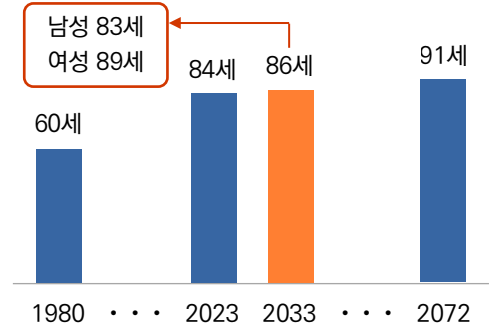
## ◎ 10년 뒤인 2033년 기대수명 86세(남성 83세, 여성 89세)!

-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도 1명이 채 안 되는 0.72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래인구추계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이동'의 인구변동 요인을 가정하여 고위(최선의 가정), 중위(대푯값), 저위(최악의 가정) 추계를 함께 발표하는데, 2033년 합계출산율은 중위추계 기준 0.92명으로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그러나 최악의 가정인 '저위 추계'로 본다면 2033년 합계 출산율은 2023년의 출산율과 동일한 0.72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10년 동안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 ▶ 2023년의 기대수명은 84세(남성:81세, 여성:86세)인데 10년 뒤는 86세(남성 83세, 여성:89세), 50년 후엔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합계출산율 추이 (가임여성의 평생 출생아 예상 수)



[그림] 기대수명 추이 (출생아의 기대 생존 연수)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02

## [고령화]

### 10년 뒤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재보다 51% 증가!

- ▶ 2023년 기준으로 10년 후의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총인구는 1.3% 정도만 감소하지만 유소년 인구는 33%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무려 5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노인 교인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고령 친화적 교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향후 10년간 인구 변화 (연령별)

(단위 : 만 명)

연도	총인구			
	계	유소년 인구 (14세 이하)	생산연령 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2023	5,171	571	3,657	944
2033	5,104	380	3,298	1,426
증감률	-1.3%	-33%	-10%	51%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 10년 후 85세 이상 노인 74% 증가!

- ▶ 고령 인구를 10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 2023년 98만 명에서 2033년 171만 명으로 10년간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표] 고령인구 연령대별 인구 변화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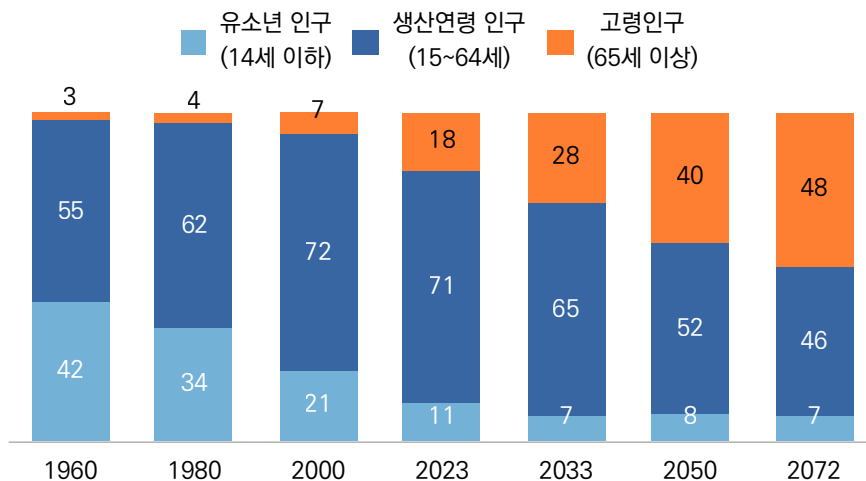
구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계
2023	551	295	98	944
2033	787	468	171	1,426
증감률	43%	59%	74%	51%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 이대로 가면 50년 후 노인이 인구의 절반 차지!

- ▶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8%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의 추세로 가면 고령인구 비율은 10년 후인 2033년에는 28%로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4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 반면, 유소년 인구는 2023년 현재 총 인구의 11%정도 되며 10년 뒤인 2033년에는 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고령화사회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14%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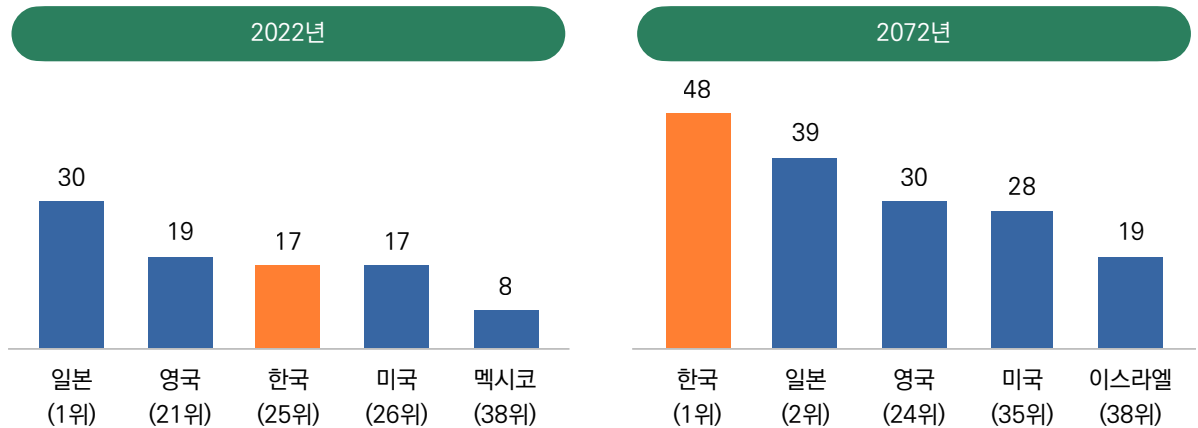
고령사회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20%인 경우

초고령사회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인 경우

## ◎ OECD 고령인구 비율, 한국 2022년 25위→2072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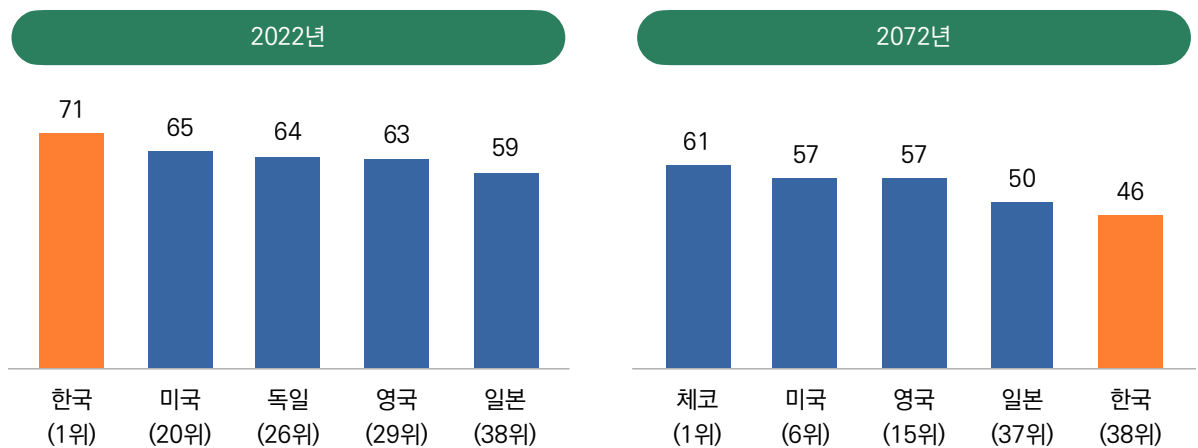
- ▶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과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이 향후 50년 뒤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OECD 국가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 ▶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17%로 OECD 38개국 중 25위, 즉 중하위권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2072년에는 48%(1위)로 OECD 국가 중 가장 노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위에서 2072년 38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실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면 46%로 떨어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OECD 38개국 중 주요국, %)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그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 (OECD 38개국 중 주요국, %)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03

## [교회학교 인구변화]

### 교회학교, 일반 학령인구 대비 감소 속도 2배 빨라!

- ▶ 이번에는 초중고 학생의 인구 변화를 일반 학생과 교회학교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 학생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 대비 19% 감소한 반면, 교회학교 학생(예장통합)은 37%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교회학교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2배가량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교회학교 초등부의 증감률(-36%)이 일반 초등학생(-4%)보다 9배가량 더 높은 감소 속도를 보여 현재 한국교회 초등부가 큰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부모인 3040세대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이다.

[표] 초중고 학생인구 변화  
(일반학생 vs 교회학교 학생) (단위 : 만 명)

구분	2013	2022	증감률
일반 학생	653	527	-19%
교회학교인구** (예장통합)	34	21	-37%

\*일반학령인구: 교육부 '2023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3.08.30.

\*\* 교회학교 인구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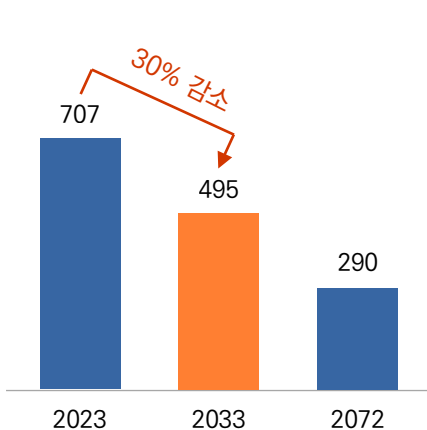
[표] 학령별 인구 변화 : 일반 vs 교회학교

구분		2013	2022	증감률
0~6세	일반 영유치아	326	220	-33%
	교회 영유치부**	10	7	-42%
초등 학생	일반 초등생	278	266	-4%
	교회 초등부**	18	11	-36%
중고등 학생	일반 중고생	370	261	-30%
	교회 중고등부**	16	10	-38%

### ◎ 10년 후 초등학생 수 절반 가까이 감소!

- ▶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의 인구 변화 예측치를 살펴보자. 2023년 707만 명에서 2033년 495만 명, 2072년에는 29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영유아+초중고 학생 인구는 30% 감소할 전망이며, 그중 초등학생의 예상 증감률은 -47%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영유아+초중고 인구 변화 예상 (만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표] 학령별 인구 변화 예상

구분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계
2023	173	261	136	136	707
2033	153	138	88	115	495
증감률	-12%	-47%	-35%	-15%	-30%

## ◎ 출산율, 국가 통계 예상 시나리오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

- ▶ 4년 전인 2019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0.90명이었지만 실제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오히려 저위 추계인 0.72에 더 가까웠다. 이는 예상 시나리오보다 더 출산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 ▶ 2022년의 14세 이하 실제 인구수도 4년 전 예상한 중위 추계 599만 명에 못 미치는 595만 명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19년 당시 통계청의 2022년 예상과 실제결과 비교

지표		2019년 당시 통계청 예상**			실제 결과
		고위 추계	중위 추계	저위 추계	
합계 출산율 (%)	2022년	1.12	0.90	0.72	0.78
	2033년	1.42	1.19	1.00	
	2065년	1.45	1.27	1.10	
0-14세 인구수 (만 명)	2022년	619	599	586	595
65세 이상 인구수 (만 명)	2022년	901	898	893	898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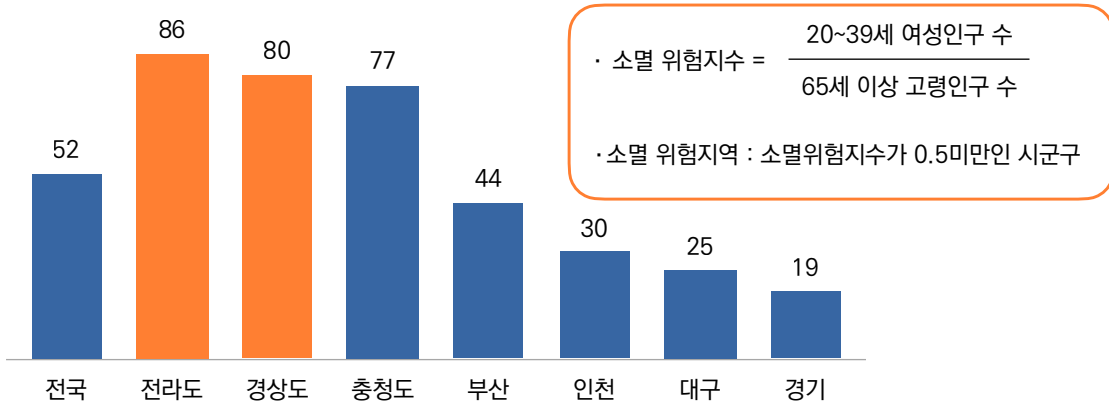


# 04

## [지방 소멸] 전라도, 경상도 지자체 80% 이상 소멸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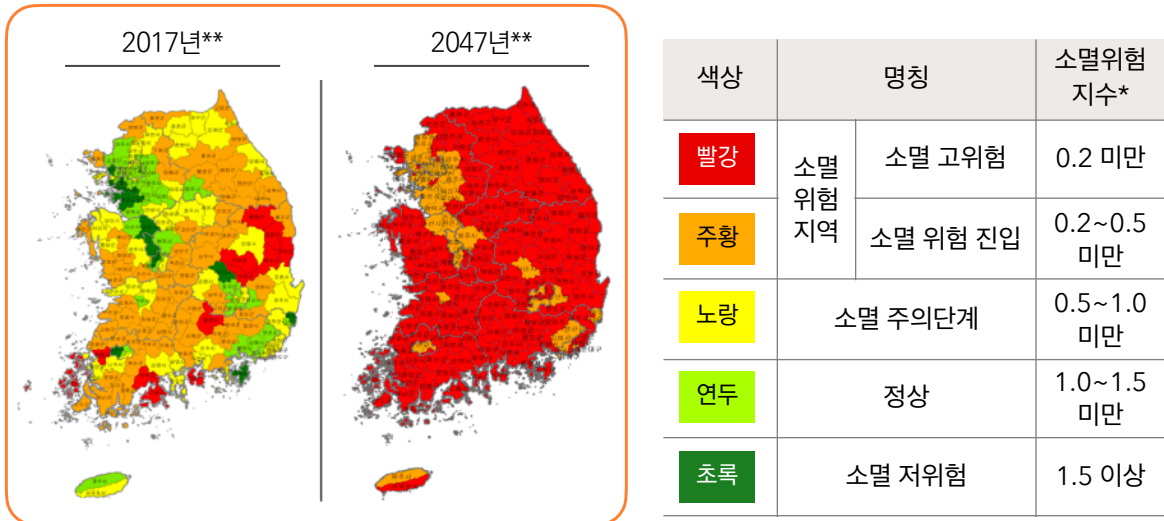
- 인구의 감소는 곧 지방 소멸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 지역(소멸 고위험+소멸 위험 진입, 소멸위험지수 0.5미만)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특히 '전라도(86%)', '경상도(80%)', '충청도(77%)'의 경우 해당 시도의 소멸 위험 지역이 80%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림] 시도별 소멸 위험 지역 비중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통계로 본 지역고용\_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2023.03.31.

[그림]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 위험 현황 (2017 vs 2047)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통계로 본 지역고용\_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2023.03.31.

\*\*자료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2021.07., P.30.

## ◎ 지방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인 수는 오히려 더 증가!

- ▶ 지역별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50년까지 기준으로 총인구 증감률은 -9%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절대인구는 줄지만, 노인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특히 농어촌교회의 경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표] 지역별 총인구와 65세이상 인구 변화

(단위 : 만 명)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2020년	2050년	증감률	2020년	2050년	증감률
8대 도시**	2,280	1,898	-17%	348	735	112%
경기	1,345	1,435	7%	172	522	203%
강원	152	148	-3%	30	70	130%
충청	381	379	-1%	67	163	143%
전라	360	301	-16%	78	145	86%
경상	599	503	-16%	111	237	114%
제주	67	70	4%	10	27	165%
<b>전체</b>	<b>5,184</b>	<b>4,736</b>	<b>-9%</b>	<b>815</b>	<b>1,900</b>	<b>133%</b>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50년', 2022.05.2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특별시1, 광역시6, 특별자치시1)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월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70년까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나라는 분석 대상 3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했다. 2075년 세계 경제 규모 순위 예측에 있어 중국(1위), 인도(2위)는 미국(3위)을 제칠 것이며 인도네시아(4위), 파키스탄(6위) 등 아시아국의 성장을 예상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는 선진국이 직면해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선진국인 유럽, 일본 등은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안정성이 나빠지는 한편, 후진국 중 일부는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대국이 된다는 시나리오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인구소멸 국가' 제1호로 한국을 지목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붕괴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국은 2020년에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거쳤는데 이는 2019년에 통계청이 예측한 시기를 무려 8년이나 앞당긴 결과이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는데, 이는 2019년에 예상한 저위 추계(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결과여서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 보고서의 수치보다 미래가 더 비관적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뒀어야 할 정도이다.

넘버즈에서는 이미 두 차례 '인구 문제'(창간호, 128호)를 다루었다. 이번 호는 50년 후까지 보지 않고 우리 앞에 곧 다가올 10년 후의 인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0년 후만 앞당겨서 보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선 10년 뒤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고령인구 수와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65세 고령 인구는 현재보다 51% 증가하고,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은 무려 7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 자체가 소멸한다는 경고가 있지만 그 이전에 노인 인구가 10년 후 1.5배, 30년 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당장 대비하는 것이 발등에 놓인 불이다.

또한 10년 뒤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초등학생은 절반(증감률 -47%) 가까이 감소한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교회 초등부가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일반 초등학생이 4% 감소할 동안 교회 초등부가 36%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본문 7쪽), 여기에 향후 10년간 초등학생이 47% 줄어든다면 인구소멸은 교회학교의 교실에서 먼저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인구 변화에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교인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고령친화적 교회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 10년 후 중위연령(총인구의 한가운데 연령)이 51세인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특성까지 감안한다면 교회의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교인 가운데 노인 비중은 절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현재 농어촌교회에 고령자 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풍경이 도시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노인이 돼서도 교회의 주체로서 사역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노인 교인들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보완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교회가 청년의 신앙과 3040세대 가정을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어야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풍토는 성경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점점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고 본받을 수 밖에 없는 학령기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의 허리인 3040세대의 신앙을 더 보살피고 격려해야 한다. 노인을 잃으면 현재 교회의 성도가 없겠지만, 교회학교를 잃으면 미래의 교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목회자 조사를 할 때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목회 키워드로 '다음세대'가 주로 꼽혔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다음세대를 신경 쓰기도 전에 먼저 다가올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야 할 갈림길에서 있다.

1) 예정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

1.[한국인의 2023년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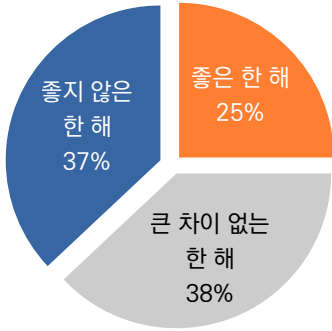
2.[한국인의 소득/자산 격차]



## 우리 국민의 2023년 개인 평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

- ▶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2023년 한 해를 평가한 조사 결과(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2023년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좋지 않은 한 해’ 37%, ‘좋은 한 해’ 25%로 ‘좋지 않았다’는 부정 평가가 ‘좋았다’는 긍정 평가보다 더 높았다.

[그림] 2023년 개인 평가\*\*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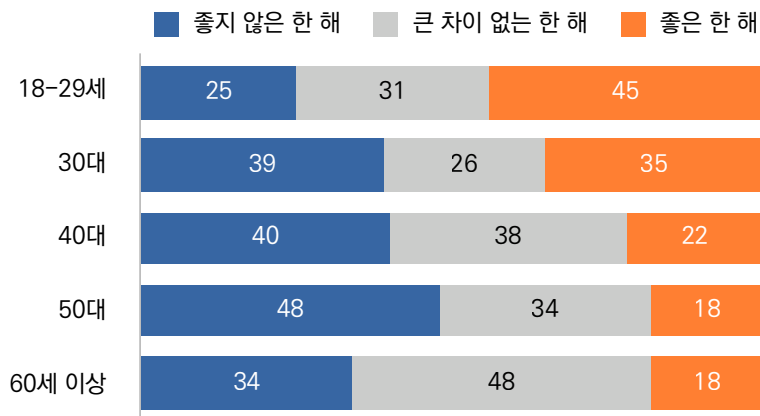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말결산-2023년』 2023년 한 해 평가, 2023.12.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2.22.~12.26.)

\*\*5점 척도로 ‘훨씬+좀 더’ 좋은 한 해, ‘훨씬+좀 더’ 좋지 않은 한 해 비율

### ◎ ‘나에게 2023은 전년보다 좋지 않은 한 해였다’, 50대층에서 가장 높아!

-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좋은 한 해’였다는 긍정 평가가 45%로 가장 높은 반면, 50대에서는 전년보다 ‘좋지 않은 한 해’였다는 평가가 절반가량(48%)에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그림] 연령별 2023년 개인 평가\*\*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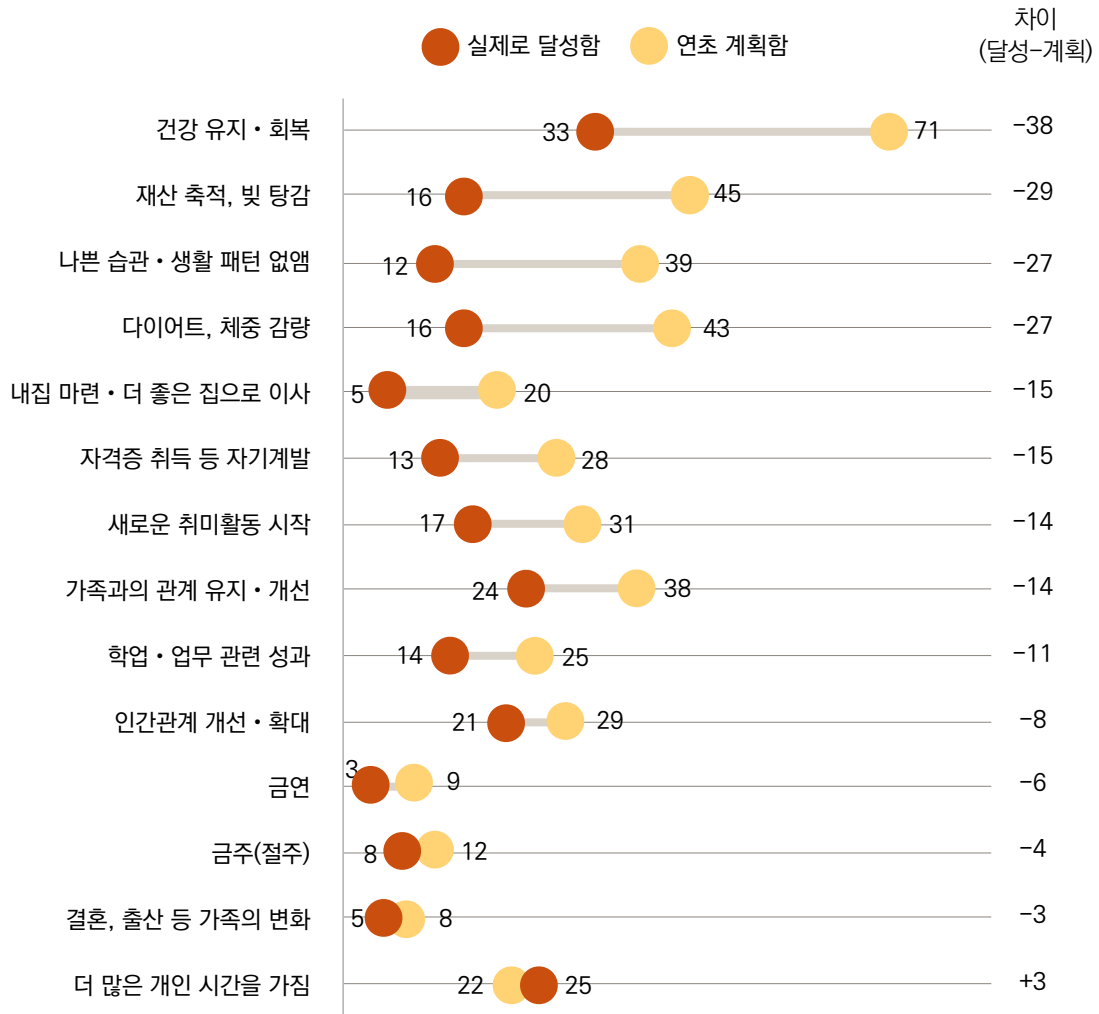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말결산-2023년』 2023년 한 해 평가, 2023.12.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2.22.~12.26.)

\*\*5점 척도로 ‘훨씬+좀 더’ 좋은 한 해, ‘훨씬+좀 더’ 좋지 않은 한 해 비율

## ◎ 2023년 연초 계획과 달성 비교, '건강관리' 가장 많지만 달성 실패도 가장 많아

- ▶ 2023년 '연초 계획'과 '실제 달성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건강 유지·회복'은 연초 가장 많이 계획한 목표(71%)였으나, 실제 달성했다는 응답은 33%로 실제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달성-계획' 격차가 -38%p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계획 대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 격차가 큰 것은 '재산 축적, 빚 탕감(-29%p)', '나쁜 습관·생활 패턴 없앴(-27%p)', '다이어트, 체중 감량(-27%p)' 등의 순이었다.
- ▶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달성률이 높은 목표는 '더 많은 개인 시간을 가짐'이 유일했다.(연초 계획 22%, 실제 달성 25%)

[그림] 2023년 계획한 것과 달성한 것 비교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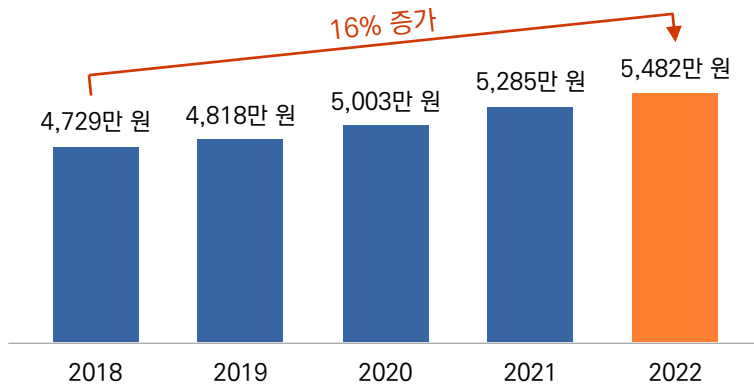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말결산-2023년』 2023년 한 해 평가, 2023.12.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2.22.~12.26.)



## 2022 우리나라 가구 소득, 코로나 기간 중에도 꾸준히 증가!

- ▶ 매년 12월에는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가정 경제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번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이 2018년보다 16% 증가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쳐 오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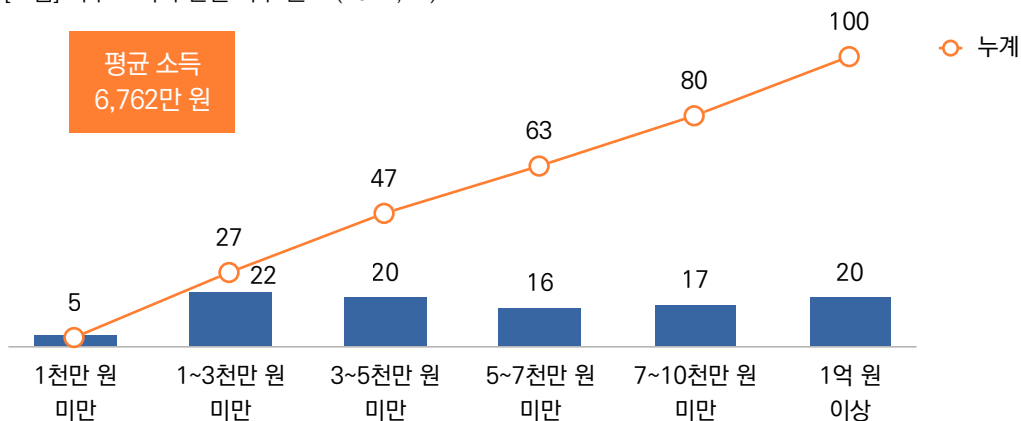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12.07.

\*\*처분가능소득= 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사적이전소득) - 비소비지출(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료, 가구간이전지출, 이자비용 등)

### ◎ 우리나라 연 가구 소득 1억 원 이상, 5가구 중 1가구!

- ▶ 2022년 기준 가구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1~3천 만 원 미만'이 22%로 가장 높았고, 절반 가까이(47%)는 '5천 만 원 미만'으로 2022년 평균 소득인 6,762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연 가구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가구도 5가구 중 1가구(20%)에 달했다.

[그림] 가구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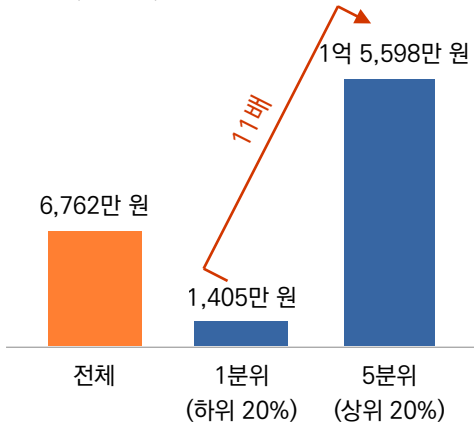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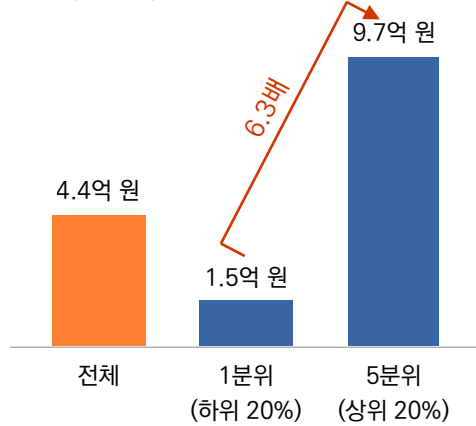
## ◎ 우리나라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소득 격차, 11배 차이!

- ▶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가구 소득과 순자산을 상위 20%와 하위 20%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2022년 기준 연 가구 소득 상위 20%는 1억 5,598만 원, 하위 20%는 1,405만 원으로 11배나 차이를 보였고, 전체 가구 소득 평균인 6,762만 원 대비 상위 20% 가구는 2.3배 더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2023년 전체 가구 평균이 4.4억 원이었는데 이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는 9.7억 원, 하위 20%는 1.5억 원으로 순자산 또한 상/하위 20% 간 6.3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연 가구소득: 소득 상위 20% vs 하위 20% (2022년)



[그림] 순자산: 소득 상위 20% vs 하위 20% 순자산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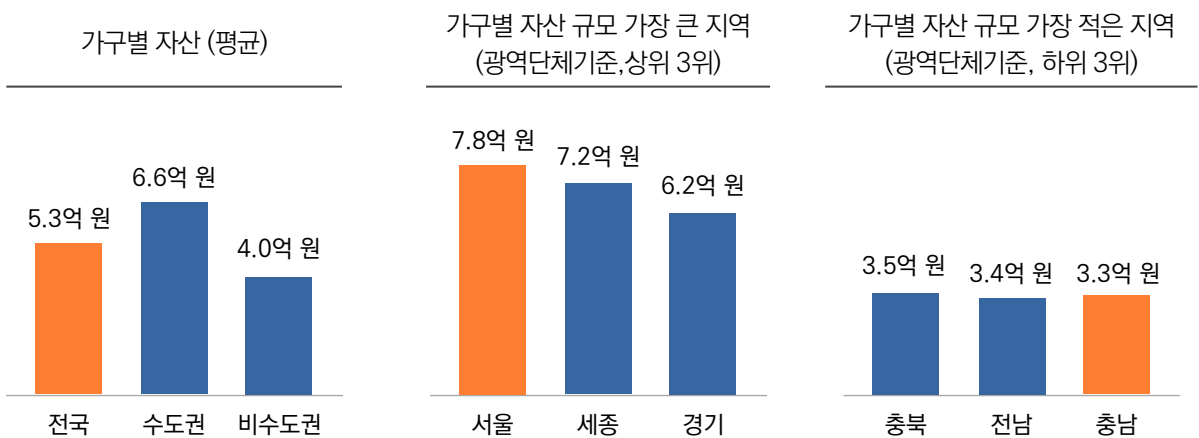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12.07.

## ◎ 수도권-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 1.6배!

- ▶ 지역별 가구별 자산 규모를 살펴보았다. 먼저 수도권, 비수도권 간 가구별 자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은 5.3억 원이었고, 수도권이 6.6억 원, 비수도권 4.0억 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는 2.6억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비 1.6배 정도 더 자산이 많은 셈이다.
- ▶ 지역별로 보면 가구별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시/도는 '서울(7.8억 원)'이었고, 반면 자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3.3억 원)'이었다.

[그림] 지역별 자산 규모 비교 (2023년 3월 말 기준)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12.07.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2023년 월별·연간 통합](#)

-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주관적 정치 성향 (1세별 주요 지표 포함) 등

[국힘 39% 민주 34%인데,尹지원 39%尹견제 53%...혼돈의 민심](#)

중앙일보\_2024.1.1.

◎ 2023 평가 및 2024 전망

[2024 경제전망, 조선비즈]

① [전문가 42.5%는 내년 韓 성장을 1%대 전망... '중장기 저성장' 난관 닥친다](#) \_2023.12.29.

②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긴축 종료' 기대감 확산](#) \_2023.12.29.

③ [중물가 시대 열린다... "글로벌 고물가, 내년 종료 전망"](#) \_2023.12.30.

④ [중국발 위험이 경제 리스크 1순위... 신성장동력 발굴 '시급'](#) \_2023.12.30.

◎ 사회 일반

[국민 여가비용 월 평균 20만원... 연차휴가 소진율 76% 그쳐](#)

국민일보\_2023.12.27.

[심해지는 지방의 고령화... 경북 노인 4명 중 1명 혼자 산다](#)

국민일보\_2023.12.29.

[술꾼 여자들이 늘었다...2030 여성 음주 가파른 증가세](#)

시사저널\_2023.12.23.

[역사상 가장 뜨거운 2024년이 온다...올해 달굴 기후이슈](#)

한겨레\_2024.1.1.

["탈북민 고용률 60.5%, 남한 생활 만족도 79.3%...역대 최고"](#)

연합뉴스\_2023.12.27.

['40대 접어든 83년생' 3명 중 1명꼴 미혼...65%는 '무주택'](#)

연합뉴스\_2023.12.28.

["임산부 44% '상사·동료 눈치 보여'...35%는 '가정내 이해부족'"](#)

연합뉴스\_2024.1.1.

['앉아 씹'가 곧 대세? 남성 46% "앉아서 소변 봅니다"](#)

조선일보\_2023.12.30.

[폐지수집 노인 4만2000여명, 시간당 1200원 번다](#)

여성신문\_2023.12.2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청년 / 청소년

["청년 행복·삶 만족도 가장 높은 노동시간은 주 15~40시간"](#)

연합뉴스\_2024.1.1.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 533곳...평균 월급 318만원](#)

연합뉴스\_2023.12.27.

[새로 지은 학교가 '텅'...신설학교 31%, 학생 수 예상치보다 적어](#)

연합뉴스\_2024.1.1.

◎ 경제 / 기업

["직장인 새해소망 1위 임금 인상...2위 노동강도 완화"](#)

연합뉴스\_2023.12.31.

["직장 선택 시 20대는 급여·60대는 출퇴근 거리 가장 우선"](#)

연합뉴스\_2023.12.28.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48%, 은퇴자금 절반도 준비 못 해"](#)

연합뉴스\_2023.12.27.

["8700만원 내고, 백세까지 月240만원 탄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은](#)

매일경제\_2023.12.28.

["한국 저출산·출퇴근 전쟁, 하이브리드 근무가 답이다"](#)

조선일보\_2023.12.24.

[작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3천100만원...부채는 1억8천500만원](#)

연합뉴스\_2023.12.27.

[한국 기업들 어쩌다 "돈 벌어서 이자도 못내"...빚 폭탄 '짜깁'](#)

한국경제\_2023.12.28.

◎ 건강

[국내 암 발생 10% 늘었다... 가장 많이 걸린 암은?](#)

헬스조선\_2023.12.28.

["건강 염려증 심하면 일찍 죽는다"](#)

연합뉴스\_2023.12.27.

◎ 기독교 / 종교

[이영훈 목사·내한 선교사들 긍정뉴스에 최다 거론](#)

더미션(국민일보)\_2023.12.28.

[목회자에게 송구영신을 묻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12.3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동성애 찬성’ 미연합감리교회… 5년새 소속 교회 25% 이탈](#)

더미션(국민일보)\_2023.12.27.

◎ 기획기사 : 2030 세대 의식 조사 통계보고서, (쿠키뉴스)

[현실도 ‘오징어게임’…청년 73% “한국서 패자부활 불가능”](#) \_2024.1.1.

[청년 4명 중 1명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해”](#) \_2024.1.1.

[女 77% “여성 혐오 심해”, 男 78% “남성 혐오 심해”](#) \_2024.1.2.

◎ 칼럼

[아이들과 '감사일기' 1년 쓰니 일어난 놀라운 변화](#)

오마이뉴스\_2023.12.31.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캠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신규 후원 |

장지울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